

가족주기 변화와 정책제언

The Change of Family Life Cycle and Policy Implications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초혼연령의 상승과 미혼율의 증가 등으로 인한 출산력 저하와 소자녀관 정착, 평균수명의 연장 및 고령화 등으로 가족주기 전 단계는 단축되는 반면 후기단계가 점차 연장되는 추세를 보여, 성인자녀 독립기 연장과 노인부부 및 노인단독가구 증가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족주기 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가족주기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진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주기 단계를 가족형성기, 가족확대기, 가족축소기, 가족해체기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사망수준의 개선으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으로 결혼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주기의 전체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자녀출산이 단축되면서 부부만이 보내는 신혼기간인 가족형성기가 단축되는 한편,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 배우자 사망시까지 노인부부가 함께 보내는 기간은 길어질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저출산 및 소자녀관의 정착으로 자녀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녀양육기간이 점차 짧아지는 현상이 뚜렷하며, 만혼화 및 결혼기피로 성인자녀의 독립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들어가며

가족주기란 사람이 가족생활에서 경험하는 결혼·출산·양육·노후의 각 단계에 걸친 시간적 연속을 의미한다. 핵가족의 경우 결혼으로 가족이 형성되고, 자녀출산으로 확대되었다가 자녀의 결혼과 분가를 통해 축소되면서 사망으로 해체하게 된다. 가족주기는 인구가족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데 최근 초혼연령의 상승과 미혼율의 증가 등으로 인한 출산력 저하와 소자녀관 정착, 평균수명의 연장 및 고령화 등으로 가족주기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 가족주기에서 저출산 및 소자녀화로 인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에 투자하는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부부만의 생활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가족형성부터 해체까지 가족주기의 전 생애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이다. 이에 비해 노후에 자녀와 동거를 원치 않는 경향이 증가하여 자녀들을 분가 시킨 후 부부만이 남게 되는 빈둥우리 시기부터 은퇴 후 부부 모두 사망하기 전까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부 후기의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주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관심은 청년층의 만혼화 및 결혼기피 등으로 성인

기 자녀의 독립시기가 지연됨에 따른 성인기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모색과 함께, 가족주기 전 생애기간의 연장으로 결혼부터 사망까지 부부가 함께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고, 배우자 없이 지내는 나홀로 노인의 급증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집중된다.

따라서 본고는 기혼여성의 가족주기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하고, 가족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가족적 환경변화를 진단하는 한편,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1) 2)}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주기별로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가족주기 분류 기준

가족주기는 결혼에 의한 가족형성부터 이혼 사별로 인한 가족해체까지의 전 가족생애과정으로서 세대별 및 세대 내에서 자녀여부 및 자녀연령, 학력 또한 자녀출산 및 자녀결혼 사건 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유영주, 1984; 윤현숙 외, 2002; 김승권 외, 2000).

듀발과 밀러(1977, 1985)는 가족주기를 2세대 핵가족 중심으로 첫 자녀의 연령과 학력에 중점을 두고 8단계로 구분하였다. 8단계로는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일단계로 ‘신혼부부 가족’, 자녀연령 및 학력에 따라 구분하여 ‘자녀출산 및 영아기 가족’, ‘유아기 가족’, ‘아동

기 가족’, ‘청년기 가족’, ‘진수기 가족’으로 구분되며, 다시 부부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중년기 부부가족’, ‘노년기 부부가족’으로 구분하였다.

카터와 맥골드릭(1980)은 결혼한 성인자녀를 부모 및 자녀세대를 연결하는 3세대 중심의 6단계 가족주기 뿐 아니라 이혼 및 재혼가족의 발달단계를 함께 제시하였다. 부모와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결혼전기’는 미혼자녀가 원가족을 떠나 가족을 형성하기 전까지 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결혼적응기’, ‘자녀아동기’, ‘자녀청소년기’, ‘자녀독립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혼가족의 생활주기는 5단계로 ‘이혼결정’, ‘가족해체 계획’, ‘별거’, ‘이혼’, 이혼 후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가족생활주기에 이혼, 별거 혹은 재혼 등으로 해체된 가정, 확대가정, 동거부부 가정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영주(1984)는 듀발과 밀러의 8단계 유형을 우리나라 가족생활주기에 적절하게 수정하여 ‘첫 자녀’를 기준으로 6단계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가족생활주기를 구분할 경우 대부분 유영주의 6단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자녀의 연령이나 가구의 연령을 임의로 선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6단계로는 ‘가족형성기’, ‘자녀 출산 및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성인기’, ‘자녀 결혼기’, ‘노년기’ 등으로 분류하였다.

윤현숙 외(2002)³⁾는 가족은 결혼에 의해 형성

1) 본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2. 4. 23~7. 30일에 수행한 것으로 조사원료 가구는 14,970가구이며, 조사대상은 15~64세 기혼가구와 15~49세 기혼여성으로 각각 10,071가구와 6,218명이 조사원료됨.

2) 가족주기의 분석대상은 15~64세의 자녀 출산경험이 있는 초혼부인으로 유배우 또는 사별 상태 부인 8,659명을 대상으로 함.

되고 부부의 사망으로 해체될 때까지 수직적 스트레스와 수평적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일련의 발달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가족생활주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가족생활주기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정서적 발달의 기본단위이며, 특유의 단계와 경과를 가진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움직임과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준거틀로서 의의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김승권 외(2000)는 세계보건기구(WHO)의 2세대 핵가족의 기본 가족주기 모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가족주기를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핵가족 중심의 6단계로는 ‘가족형성기’(결혼~첫 자녀 출생), ‘가족확대기’(첫 자녀의 출생~막내 자녀의 출생), ‘가족확대완료기’(막내자녀의

출산~자녀의 첫 번째 결혼), ‘가족축소기’(자녀의 첫 번째 결혼~모든 자녀의 결혼완료), ‘가족축소완료기’(노부부만 남는 빈둥지 시기), ‘가족해체기’(배우자 사망 이후 혼자서 살아가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가족 중 핵가족 비율이 2010년 기준 62%(통계청, 2010)인 점을 감안하여 세계보건기구의 2세대 핵가족의 기본 가족주기 모형을 근거로 결혼, 자녀출산 및 결혼, 배우자 사망 등의 사건을 중심으로 ‘가족형성기’(결혼~첫째아 출산), ‘가족확대기’(첫째아 출산~막내아 출산), ‘가족축소기’(자녀결혼시작~자녀결혼 완료), ‘가족해체기’(배우자 사망~본인 사망)로 구분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표 1. 가족주기 분류 기준

연구자	기준	가족주기 유형
듀발과 밀러 (1997, 1985)	2세대 핵가족 중심 첫 자녀의 연령과 학력	8단계로 분류 신혼부부가족, 자녀출산 및 영아기 가족, 유아기 가족, 아동기 가족 청년기 가족, 진수기 가족, 중년기 부부가족, 노년기 부부가족
카터와 맥골드릭 (1980)	3세대 중심 부모와 자녀관계	6단계로 분류 결혼전기, 결혼적응기, 자녀아동기, 자녀청소년기, 자녀독립기, 노년기
유영주(1984)	2세대 핵가족 중심 첫 자녀	6단계로 분류 가족형성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교육기, 자녀 성인기 자녀결혼기, 노년기
김승권(2000)	2세대 핵가족 중심 자녀출산 및 결혼	6단계로 분류 가족형성기, 가족확대기, 가족확대완료기 가족축소기, 가족축소완료기, 가족해체기

자료: 1) 유영주(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인용
 2) 한국여성복지연구회(2006). 가족복지론, 청목출판사. 인용
 3)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

3) 윤현숙 외(2002).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서울: 동인.

3. 인구가족적 환경변화

1) 혼인 및 출산행태 변화

(1) 초혼연령 상승

우리나라 혼인행태는 만혼화 및 혼인기피 현상을 보이며 이는 초혼연령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의 초혼연령은 1980년 27.3세에서 1990년 27.8세로 10년간 0.5세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29.3세로 동 기간 1.5세가 증가하여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2013년에는 32.2세로 13년간 2.9세가 증가하여 초혼연령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은 1980년 24.1세에서 1990년 24.8세로 10년간 0.7세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26.5세로 1.7세 증가하여 큰 폭의 상승을 보였으며, 2013년에는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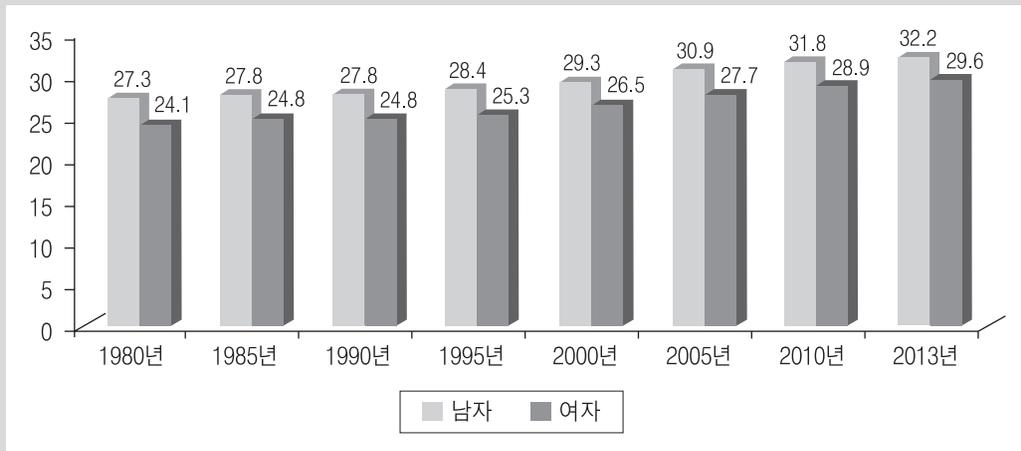
세로 3.1세 증가하여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대체로 초혼연령의 변화는 여성이 남성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여성의 고학력화 및 취업기회의 확대 등에서 오는 결과로 이해되며 여성의 만혼화 현상은 출산 및 양육 등 전반적인 가족주기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한다.

(2) 혼인해체 증가 및 시기

최근 소가족화 및 핵가족에 따라 가족관계 및 부양가치관이 약화되고 이혼가치관의 허용도와 가정폭력의 증가 등으로 가족해체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 가족해체를 나타내는 지표인 이혼건수와 이혼율의 변화추이를 보면, 우리나라 총 이혼건수는 1980년 23.7천 건에서 1990년에 45.7천건으로 10년 간 2배 증

그림 1. 성별 평균 초혼연령(1980~2013년)

(단위: 세)



자료: 통계청(1980~2013). 인구동태통계연보

가하였고, 2000년에는 119.5천건으로 동 기간 2.6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115.3천으로 소폭의 감소를 보였다. 조이혼율도 1980년 인구 천명당 0.6건에서 1990년 1.1건, 2000년에는 2.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에는 2.3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의 비율은 1980년 5.9%에서 2013년 35.7%로 33년간 6배 증가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연령은 가족해체시기와 밀접하며 이는 가족주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의 평균 이혼연령은 2000년 40.1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46.2세로 13년간 6.1세가 높아졌고, 여성은

2000년 36.5세에서 2012년 42.4세로 동 기간 5.9세 높아졌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은 2000년 10.9년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3년 14.1년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황혼이혼 등으로 이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이혼한 부부 중에서 15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비율은 2000년 29.6%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43.0%로 13.4%p 높아졌다. 이는 가족주기 상에서 자녀양육 및 가족안정기에 이혼을 하는 경향이 높아짐을 의미하며, 고령층 부부의 이혼으로 가족해체가 단축에 다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총 이혼건수와 조이혼율(1980~2013년)

(단위: 천건,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 %)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3년
총이혼건수	23.7	38.2	45.7	68.3	119.5	128.0	116.9	115.3
조이혼율	0.6	1.0	1.1	1.5	2.5	2.6	2.3	2.3
혼인건수 대비 이혼건수	5.9	9.9	11.4	17.1	36.0	40.7	35.8	35.7

자료: 통계청(1980~2013), 인구동태통계연보.

표 3. 평균 이혼연령과 동거기간 및 15년 이상 동거부부의 이혼비율(2000~2013년)

(단위: 세, 년, %)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8년	2010년	2013년
평균이혼연령	남자	40.1	41.3	42.1	44.3	45.0	46.2
	여자	36.5	37.9	38.6	40.5	41.1	42.4
평균 동거기간		10.9	11.9	12.0	12.8	13.0	14.1
15년 이상 동거부부의 이혼비율		29.6	32.7	33.4	37.2	38.3	43.0

자료: 통계청(2000~2013), 인구동태통계연보.

(3) 저출산 현상 및 소자녀화

우리나라 출산수준은 산업화, 도시화, 사망수준의 저하 등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가족계획 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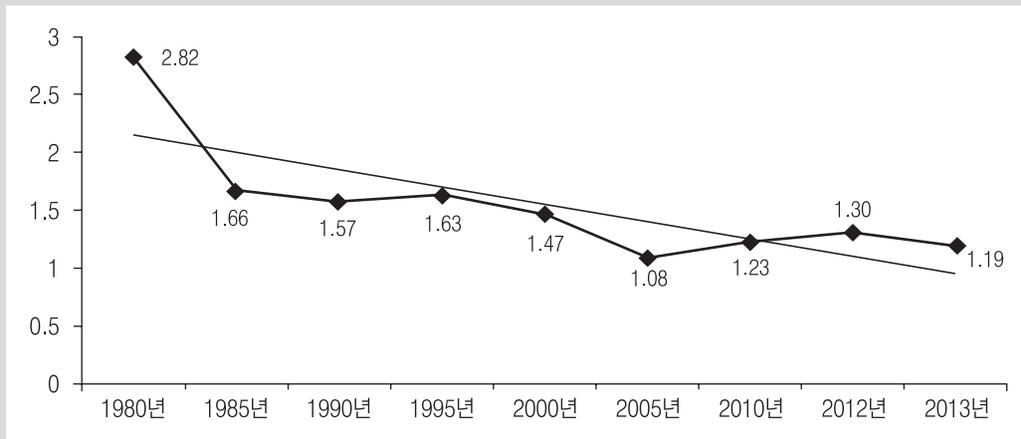
합계출산율은 출산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최근 30년 간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보면, 1980년 2.82명에서 1990년에는 1.57명으로 10년간 44.3% 감소하였고, 2000년에는 1.47명으로 감소폭이 6.4%로 줄어들다가 2010년에는 1.23명으로 다소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1.19명으로 소폭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보다 2000년대는 완만한 감소를 보였으나 지속적으로 뚜렷한 저출산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소자녀화 현상을 유배우부인의 평균 출생아수⁴⁾와 평균 현존자녀수⁵⁾를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15~44세 유배우 부인의 평균 출생아수는 1991년 2.2명에서 2000년 1.7명으로 10년간 0.5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인구대체 수준 이하에 이른다. 2003년과 2006년에는 1.7~1.8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09년부터 감소하여 2012년에는 1.61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여서 우리나라 유배우 부인의 출산행태는 소자녀관이 정착되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또한 평균 현존자녀수도 1991년 2.1명에서 2000년 1.7명으로 10년간 0.4명이 감소하였고, 그 이후 비슷한 규모를 보이다가 2009년 이후 감소하여 2012년 1.61명으로

그림 2. 합계출산율(1980~2013년)

(단위: 명/여성 1명당)



자료: 통계청(1980~2013). 국가통계포털 출산동향.

4) 출생아란 부인이 생애동안 출산한 모든 자녀가 포함됨.

5) 현존자녀란 현재 생존하고 모든 자녀가 포함됨.

평균 출생아수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영양발달 및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사망에서 오는 차이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초혼연령의 상승과 함께 소자녀의 출산은 가족형성기에서 확대기 간격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특히 자녀출산 및 양육기가 짧아지는 대신 자녀결혼 완료 후 노인부부만이 남는 빈둥지 시기가 길어짐을 의미한다.

2) 평균수명 연장 및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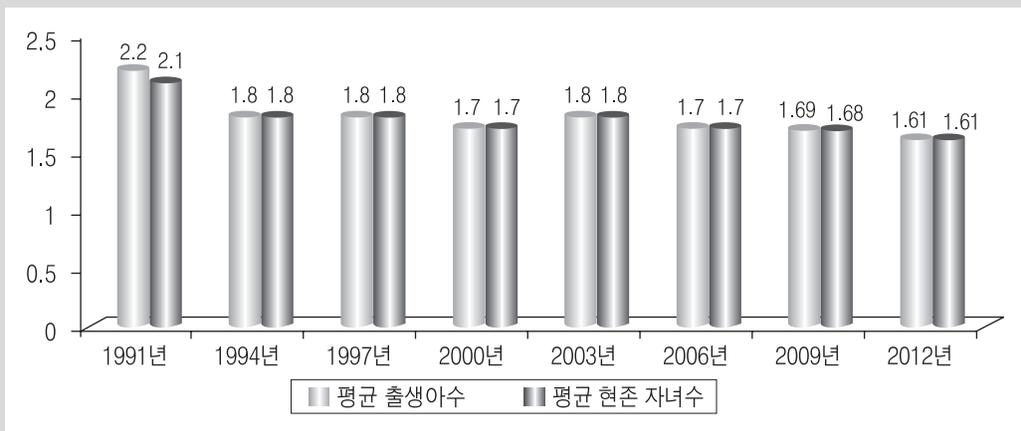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보건수준의 향상, 영양 및 환경개선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의 향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다. 최근 30년간 평균수명의 변화를 보면, 1980

년 65.7세에서 1990년 71.3세로 10년간 5.6세로 증가폭이 컸으며, 2000년에는 76.0세로 4.7세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80.8세로 4.8세가 늘어나서 199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30년간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15.1세 늘어났으며, 남녀모두 동 기간 14~15세가 늘어나 성별로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동 기간 남녀간에 평균수명의 차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약 7~8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수명 연장은 전체 가족생애주기 기간과 관련이 높으며, 인구 고령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인구와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볼 수 있는데, 30년간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은 1980년 3.8%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11%로 동기간 약 3

그림 3. 평균 출생아수 및 현존 자녀수(1991~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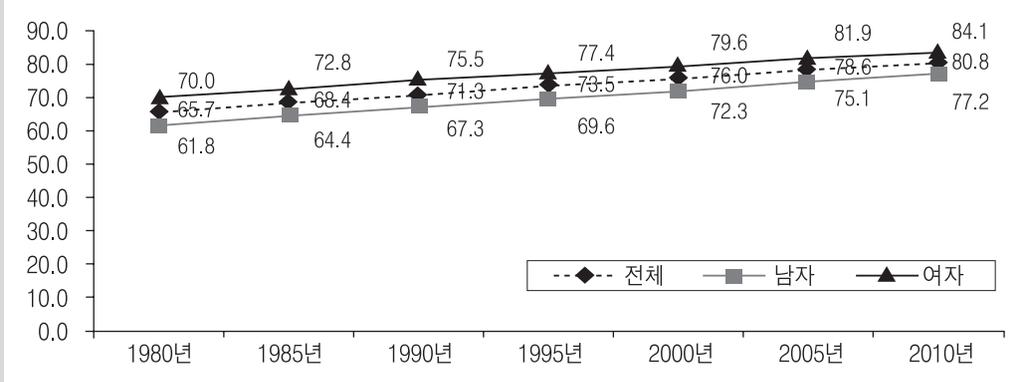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1) 공세권 외(1992).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1991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홍문식 외(1994).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조남훈 외(1997).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승권 외(2004).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김승권 외(2006).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김승권 외(2009).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4. 평균수명 변동추이(1980~2010년)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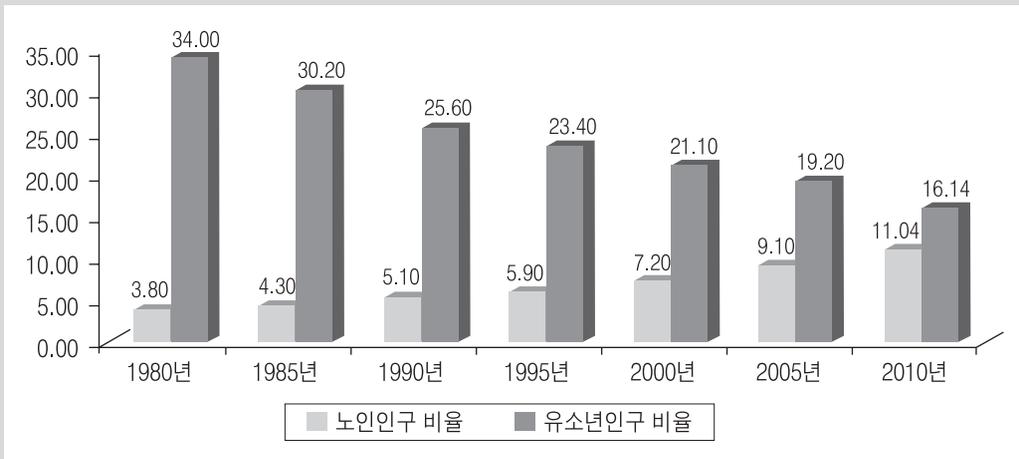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배 증가한데 비해, 유소년인구비율은 1980년 34%에서 2010년 16.14%로 거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여서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평균수명의 증가는 전체 가족주기를 연장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전체 가족주기 동안 노인부부 또는 노인단독 가구 형태

그림 5. 노인인구 대비 유소년인구비율(1980~2010년)

(단위: %)



자료: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노인부양 및 돌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을 시사한다.

4. 가족주기 변화양상

1) 가족주기 분석대상의 특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2년에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주기 변화를 분석하였다. 가족주기 분석대상은 전체 15~64세 초혼부인 중 유배우 또는 사별부인으로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5~64세 초혼부인 중 93.3%가 자녀출산 경험이 있으며, 초혼연도별로는 1970년대까지 결혼한 부인은 99.3%가 출산경험이 있고, 1980년대는 98.5%, 1990년대 98.2%, 그리고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은 81.7%가 출산경험이 있었다. 이는 최근에 결혼한 부인 중 일부 저연령층의 경우 출산계획은 있으나 아직 출산하지 않은 부인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된다.

15~64세 초혼부인 중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을 대상으로 평균 연령 및 자녀수, 출산완료수준과 기혼자녀수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부인의 평균연령을 초혼연도별로 보면,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의 평균 연령은 58.17세로 장년층이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는 50.99세와 42.44세, 그리고 2000년대 결혼한 부인은 34.13세로 중년층의 분포를 보였다.

평균 출생아수는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2.42명이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는 2.06명과 1.99명, 그리고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은 1.64명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평균 출생아수가 적게 나타나서 소자녀관의 정착에서 오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평균 현존자녀수는 총 출생자녀 중 사망자녀를 제외한 자녀수로 1970년대까지 결혼한 부인은 평균 2.39명이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는 2.03명과 1.98명, 그리고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은 1.63명으로 사망률 개선에 의한 차이가 거의 없음을 보여준다. 한편, 출산이 완료되지 않은 부인을 대상으로 평균 추가희망자녀수를 보면 1990년대와 2000년대는 1.05명과 1.15명으로

표 4. 15~64세 초혼부인의 초혼연도별 출생아 유무

(단위: %, 명)

출생아 유무	초혼연도				전체
	1979년 이전	1980~1989년	1990~1999년	2000~2012년	
없음	0.7	1.5	1.8	18.3	6.7
있음	99.3	98.5	98.2	81.7	93.3
계(수)	100.0(1,211)	100.0(2,328)	100.0(2,440)	100.0(2,680)	100.0(8,659)

주: 초혼 유배우·사별 부인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많았다. 출산완료율은 2000년대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98.7~100.0%로 대다수가 출산을 완료하였고, 2000년대 이후는 68.9%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기혼자녀를 둔 부인은 연령이 높고 결혼연도가 빠를수록 비율이 높아 1979년 이전에 결혼한 부인은 80.4%로 4/5의 분포를 보인데 비해, 1980년대는 20.0%에 불과하였다. 평균 기혼자녀수 역시 결혼연도가 빠른 부인일수록 많아서 1979년 이전은 1.82명, 1980년대 1.19명, 그리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은 아직 기혼자녀가 없었다.

지의 시기를 말하며, 가족형성기의 시작시점은 초혼연령으로 결혼 후 첫 자녀출산 시점에 따라 결혼코호트별로 신혼기간에 차이를 보인다.

가족형성기의 시작시점인 초혼연령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1979년 이전은 21.61세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는 23.42세와 25.00세로 높아졌고,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은 27.24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취업률 상승으로 인한 만혼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늦어지는 가족형성기는 부인의 출산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의 생식보건과 아동의 인구자질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 가족주기 단계별 변화

(2) 가족확대기

(1) 가족형성기

가족형성기는 결혼부터 첫째아 출산 이전까
가족확대기는 첫째자녀 출산부터 막내아 출산시점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가족확대기의 시

표 5. 15~64세 초혼 출산경험 부인의 초혼연도별 특성

(단위: 세, 명, %)

특성	초혼연도				전체
	1979년 이전	1980~1989년	1990~1999년	2000~2012년	
평균 연령(세)	58.17	50.99	42.44	34.13	44.95
평균 출생아수(명)	2.42	2.06	1.99	1.64	1.98
평균 현존자녀수(명)	2.39	2.03	1.98	1.63	1.96
평균 추가희망자녀수(명)	1.00	1.00	1.05	1.15	1.14
출산완료율(%) ¹⁾	100.0	99.9	98.7	68.9	90.6
기혼자녀 둔 비율(%)	80.4	20.0	-	-	17.6
평균 기혼자녀수(명)	1.82	1.19	-	-	1.61
(분석대상수)	(1,203)	(2,294)	(2,396)	(2,190)	(8,083)

주: 1) 추가자녀 희망 여부에서 '생각 중'인 경우를 완료에 포함.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6. 가족형성기 부인의 평균연령

(단위: 명, 세, 년)

초혼연도	(분석대상수)	초혼연령	기간
1979년 이전	(1,203)	21.61	1.53
1980~1989년	(2,294)	23.42	1.42
1990~1999년	(2,396)	25.00	1.57
2000~2012년	(2,190)	27.24	1.46

주: 분석대상은 15~64세 이하 기혼여성 중 초혼 유배우이거나 사별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임.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작시적인 첫째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초혼연령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차 높아져 1979년 이전은 23.14세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는 24.84세와 26.57세로 높아졌고, 2000년대는 28.70세로 결혼 후 첫 자녀를 가지는 시기는 1.42~1.57년이 소요되어 대체로 결혼 후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확대기의 종료시점인 막내아 출산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은 26.87세였고, 1980년대와 1990년대는 28.17세와 29.78세이었으며,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은 31.07세에 출산을 완료할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아 출산과 막내아 출산간의 소요 기간은 초혼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여서, 1979년 이전은 3.73년이 소요되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는 3.33년과 3.21년, 그리고 2000년대는 2.37년이 소요되어서 결혼연도가 최근으로 오면서 첫째아와 막내아 사이의 출산 간격이 점차 좁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소자녀관의 정착으로 자녀출산 및 양육기간이 단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가족확대기 부인의 평균연령

(단위: 명, 세, 년)

초혼연도	첫째아 출산		막내아 출산		기간
	(분석대상수)	평균	(분석대상수)	평균	
1979년 이전	(1,199)	23.14	(1,199)	26.87	3.73
1980~1989년	(2,294)	24.84	(2,294)	28.17	3.33
1990~1999년	(2,396)	26.57	(2,396)	29.78	3.21
2000~2012년	(2,190)	28.70	(2,190)	31.07	2.37

주: 분석대상은 15~64세 이하 기혼여성 중 초혼 유배우이거나 사별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임.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가족축소기

가족축소기는 자녀의 결혼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자녀의 결혼이 완료되는 시점 즉, 모든 자녀가 결혼을 마칠 때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가족축소기의 시작시점인 자녀결혼 시작 시 부인의 연령은 최근으로 오면서 점차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1979년 이전은 자녀결혼 시작이 54.78세였으나,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은 59.45세로 추정된다. 이는 자녀의 결혼연령 상승으로 인해 자녀출산완료 후 자녀결혼 시작 시까지의 기간이 연장됨에 따른 결과로 이해된다. 또한, 축소기의 종료시점인 자녀결혼 완료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은 59.47세에서 2000년대에 결혼한 부인은 63.90세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부인의 결혼연도가 최근으로 오면서 자녀결혼 완료시 부인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그 간격이 다소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과거에 비해 자녀수 감소로 출산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자녀의 결혼연령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

따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자녀결혼 시작과 자녀결혼 완료 간의 소요기간은 결혼코호트별로 차이를 보여서, 1979년 이전은 4.69년이 소요되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는 3.28년과 3.33년, 그리고 2000년대는 4.45년이 소요되어서 대체로 부인의 결혼연도가 최근으로 오면서 자녀의 결혼간격이 벌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혼인가치관의 약화, 대학원 진학 및 취업 등으로 인한 만혼화 및 결혼기피 등의 사회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가족형성부터 가족확대, 그리고 가족축소기의 변화를 종합해 볼 때, 부인의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녀의 출산기간은 단축되는 특성을 보이거나 자녀결혼이 늦어지면서 성인 자녀의 양육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4) 가족해체기

가족해체기는 배우자 사망부터 본인 사망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가족해체기의 시작시점인 남편 사망시 부인연령은 1979년 이전은

표 8. 가족축소기 부인의 평균연령

(단위: 명, 세, 년)

초혼연도	자녀결혼 시작		자녀결혼 완료		기간
	(분석대상수)	평균	(분석대상수)	평균	
1979년 이전	(1,199)	54.78	(1,199)	59.47	4.69
1980~1989년	(2,294)	56.73	(2,294)	60.01	3.28
1990~1999년	(2,396)	58.18	(2,396)	61.51	3.33
2000~2012년	(2,190)	59.45	(2,190)	63.90	4.45

주: 분석대상은 15~64세 이하 기혼여성 중 초혼 유배우이거나 사별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임.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6.14세였으나, 2000년대는 85.92세로 추정되었고, 해체기의 종료시점인 부인 본인 사망시 연령은 같은 기간에 각각 78.10세와 90.62세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이 가족해체기의 시작과 종료시점인 남편 사망시 부인연령과 부인 본인 사망연령은 결혼년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남편사망시 부인연령과 부인 본인 사망시 연령 간의 잔여기간은 결혼코호트별로 차이를 보여서, 1979년 이전은 1.96년이 소요되었고, 1980년대와 2000년대는 2.96년과 3.82년, 그리고 2000년대는 4.70년이 소요되어서 최근으로 오면서 남편사망 후 부인이 혼자 남게 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남녀간에 평균수명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만혼화 등으로 부인의 결혼과 출산이 늦어짐에 따라 가족주기 내에서 자녀출산 및 결혼 완료 후 부부만이 함께 지내는 잔여기간이 단축되고는 있으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가족해체가 연장됨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부인의 결혼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족주기의 전체기간은 최근에 결혼한 부인일수록 점점 길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1979년 이전은 56.49년이었으나 2000년대로 오면서 63.38년으로 추정되어 약 30여 년 동안 6.89년 정도 더 연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가족주기 전체 기간의 연장은 사망수준의 개선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가족주기 전체 기간의 연장추세는 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가족주기 단계별 기간변화의 특성

(1) 부부만의 기간

전체 가족주기단계에서 부부만이 보내는 기간의 변화를 결혼코호트별로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 후 첫째아 출산 전까지의 젊은 부부만이 보내는 신혼기간은 1979년 이전에는 1.06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1.03년으로 다소 줄

표 9. 가족해체기 시작과 종료시 부인의 평균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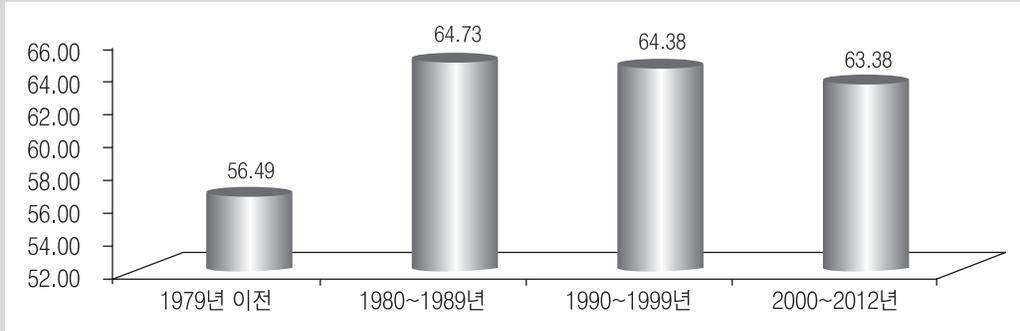
(단위: 명, 세, 년)

초혼연도	남편사망		본인사망		기간
	(분석대상수)	평균	(분석대상수)	평균	
1979년 이전	(1,193)	76.14	(1,203)	78.10	1.96
1980~1989년	(2,287)	85.19	(2,294)	88.15	2.96
1990~1999년	(2,396)	85.56	(2,396)	89.38	3.82
2000~2012년	(2,190)	85.92	(2,190)	90.62	4.70

주: 분석대상은 15~64세 이하 기혼여성 중 초혼 유배우이거나 사별이면서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임.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6. 초혼연도별 가족주기 전체기간 변화

(단위: 년)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어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자녀출산이 단축되면서 신혼기간인 가족형성기도 단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후 배우자 사망시까지 노인부부가 함께 보내는 기간은 1979년 이전에는 12.05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16.7년으로 약 4년이 길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부부만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가족생활에 있어 부부관계가 중요함을 의미하여 부부관계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 자녀양육 기간

전체 가족주기단계에서 자녀양육 기간의 변화를 결혼코호트별로 보면, 소자녀관의 정착으로 자녀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녀양육기간이 점차 짧아지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1979년 이전에는 자녀양육기간이 34.2년이 소요되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00년 이후에는 32.7년으로 약 2년 정도 짧아졌다. 이는 기혼부

인의 취업과도 관련이 높아서 기존 여성이 담당하던 가족 돌봄 및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만혼화 및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인해 성인자녀의 독립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성인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5. 정책제언

1) 가족주기 단계별로 차별화된 정책기반 모색

최근 가족형성기의 출발점인 결혼은 점차 늦어지는 추세이나 소자녀에 대한 선호로 확대기는 단축되고 있으며, 출산간격 또한 짧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들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는 확대완료기는 교육기간 연장 및 혼전 취업기회 확대, 결혼관의 변화에 의한 자녀 결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점차 길어지고 있다. 특히 초혼연령의 지속적인 상승

표 10. 가족주기 중 부부만의 기간, 자녀양육기간 및 여자 노인만의 기간

(단위: 년)

초혼연도	신혼부부 생활기간	자녀 양육기간	노인생활기간		
			소계	노인부부만의 생활기간	여자노인만의 생활기간
1979년 이전	1.53	36.33	18.63	16.67	1.96
1980~1989년	1.42	35.17	28.14	25.18	2.96
1990~1999년	1.57	34.94	27.87	24.05	3.82
2000~2009년	1.46	35.20	26.72	22.02	4.70

자료: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도 자녀의 결혼시작시기부터 모든 자녀가 결혼하여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되는 축소기는 점차 짧아지는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형성기부터 자녀양육기를 거쳐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가족주기 전기 단계는 단축되는 반면, 자녀결혼이 완료되어 부부만이 남는 시기와 배우자 사망으로 혼자 남은 여생을 보내는 가족주기의 후기단계는 점차 연장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가족주기 단계별로 복지욕구에 차이를 보이므로 가족주기를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과 함께 가족주기 후기단계에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독립적·민주적인 성인자녀와 노부모관계 정립

최근 가족주기변화는 성인자녀가 독립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부모와 함께 지내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성인자녀와 노부모간에 ‘새로운 관계’ 모색이 요구된다. 종전에는 노부모가 집안의 어른으로서 경제적 및 정서적으로 많은 지

지를 받았으나, 최근 노부모 부양 기피와 함께 노부모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노부모를 유기하는 경우도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노부모-성인자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의존적 관계에서 탈피하여 독립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기관 등을 활용하여 가족관계 교육 및 소통프로그램, 상담서비스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기관을 통한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하고 부모자녀 관계 스트레스 및 갈등을 해소하는 프로그램 제공도 강구되어야 한다.

3) 양성평등적 부부관계 모색

핵가족화 현상과 함께 평균수명연장으로 가족주기에 있어 부부만의 생활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점차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서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부장적 가족

문화를 개선하고 성 평등적 부부관계 확립을 위해 가족유형 및 가족주기별로 부부관계, 부모역할 관련 교육·상담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모델을 발굴하고 홍보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 평등적 부부관계 인식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부부간의 평등한 역할공유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여가시간을 부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이나 사회교육기관 등을 통해 부부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의 활성화, 근로시간의 축소, 남성의 육아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요구된다.

4) 자녀양육 및 돌봄부담 경감 방안 마련

만혼화 및 소자녀관 정착으로 가족형성기와 확대기가 단축되고 있으며 이는 여성의 역할변화를 초래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을 제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여성의 취업수준은 연령별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2013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5%이나 결혼 전인 20대에는 62.0%에서 자녀출산·양육기인 30대는 58%로 감소하다가 자녀양육 후기인 40대부터 증가하여 66% 수준에 이른다. 이는 가족주기와 여성의 취업과는 밀접하며 자녀출산 및 양육기의 단축에 따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는 자녀양육 및 돌봄 등의 공백을 초래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들 가족주기에 해당되는 중장년기

의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양육 및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이 다각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일환으로 근로환경 및 일가정 양립에서 오는 스트레스 대처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일가정양립정책 대상이 다양한 가족주기를 고려한 정책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 내 합리적인 돌봄역할 분담을 위해 양성불평등적 돌봄구조를 지양하고 돌봄의 성별공유인식을 확대하여 양성평등적 돌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5)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기반 마련

전반적으로 결혼부터 남편 사망시까지 부부의 결혼기간은 길어지고 있으며, 가족주기의 후기단계인 축소완료기 및 해체기가 연장됨으로써 노인부부가구 및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길어진 노년기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전반을 통해 노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예비 노인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재무, 건강 및 여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노후설계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은퇴설계를 통해 수용성을 제고한다. 또한 현 은퇴제도는 급변하는 가족주기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은퇴제도의 개선과 함께 근로를 희망하는 건강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 없이 지내는 나홀로 노인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보호기반이 필요하며 일환으로 사회적 지지층 형성과 함께 노인친화적 돌봄망 구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